

Cabinet Worship: "A Time for Trust" Bishop Sally Dyck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 1-3)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또한 신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신약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믿음과 신뢰**라는 두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구절로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와 믿음**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보거나, 경험하였거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으로 중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제가 중력을 믿으며 높은 곳에서 무모하게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믿음**도 비슷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는 배웠으며 그 믿음은 제 신앙에 영향을 끼쳤고 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신앙과 믿음**을 거의 동등하게 다룹니다. 내가 **믿기**때문에 나는 **신앙**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한다면: 어떤 날은 나의 믿음이 – 하나님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이웃의 선함이 쉽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들이 두려움과 걱정 (특히 어둠속에 있을때) 놓여 있음을 경험합니다.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내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2차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이 쓴 시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믿는다: I Believe” 입니다.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햇빛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사랑할 자가 없을 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침묵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을 통해서도
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에 내 노래는 믿음에서 신뢰로 변화하며:

언젠가 해가 비취고
언젠가 행복이 오며

언젠가 사랑이 있으며
언젠가 평화가 도래하기를 ...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제가 머리 속으로 생각하거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 머리와 생각에 머물고 있다면, **신뢰**란 우리들의 가슴과 뺨속까지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신뢰**란 중요한 믿음의 구성요소입니다.

어쩌면 신뢰와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 교수요 학자인 랍비 로렌스 쿠쉬너 (Lawrence Kushner)는 유대인 중학생들과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가 바라는 대답은, 좋은 선생으로서, 어떤 학생은 네라고 대답하고 어떤 학생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여서 열띤 토론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답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쿠쉬너 랍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3천년동안 이어져온 경건과 도전과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서브버브 중산층에 사는 이녀석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

그 이후에 대화 중에 학생들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중에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니?”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낄때는 - 어머니가 안식일 촛불을 켜는 때라든가, 야외의 자연속에서 또는 엄청난 경험을 할때 - **믿음**이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실제로 가깝게 느낄수 있다고했습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속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신뢰의 반대는 불신이나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 하느냐 그러면 나를 신뢰 하라”고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그 때가 제자들이 심한 불안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911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갔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 참석이 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포커스가 하나님을 **신뢰**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답만을 믿으라고 주입하였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뒤바뀌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 911 사건에서 고층 건물들이 공중에 그대로 서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어서 -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행사에 마음대로 참여 할 수도 없게 되고 우리 알고 믿었던 삶들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어둔 밤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제가 밤중에 깨어났다가, 다시 잠을 청할 때에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잠을 청합니다. 여기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가 ABC 송을 자장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노래는 가르침은 있어도 안위와 신뢰를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노래, 시편과 신뢰와 확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찬양을 많이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쳐 올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 내가 그를 신뢰 하면 두려움 없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 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해서 미군이 참여한 사막의 폭풍 전쟁중에도 찬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여자성도님의 친척 중에 전쟁터로 나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성도님하고 제가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방법이 꼭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족인 저보다도 목사님이 전쟁터에 나간 식구들을 더 많이 염려하신다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하곤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자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저 보다 더 신뢰하셨습니다. 그성도님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전쟁에 대하여 그 성도님 하고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어서 그 여자 성도님은 지역사회에서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녀를 지탱 시켜주는 유일한 그녀의 공동체였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 하시네. 내가 그를 신뢰함으로 두렵지 않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신뢰 하는 자는 예수의 일을 감당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 도움이 필요한자에게 손을 내민다면 ...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들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